

## ‘책의 길, 공존의 길’ 열며 성료



국내 최대 도서 잔치 ‘2008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5월 14~1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과 인도양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28개국 674개 출판사가 745개 부스에서 책을 전시했다.

올해 주빈국으로 선정된 중국에서는 107개 출판사가 참가했고, 작가·출판인들이 방한해 책 1만5000권을 소개했다. ‘서울국제북아트전’, ‘한국전자출판산업전’도 동시행사로 18일까지 함께 진행되었다.

### 2008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개막식에는 국내외 주요 인사 30명이 함께했다.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백석기 출판문화협회 회장, 아나 마리아 카바네야스 국제출판협회 회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장이권 중국신문출판총서사무국 주임 등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 테이프 커팅과 전시 현황 보고, 주빈국 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태평양홀 입구에서 열린 테이프 커팅식은 사회자의 구호와 함께 일렬로 선 참석자들은 일제히 테이프를 잘랐다. 이후 고흥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의 간단한 전시 현황보고가 이어졌다.



① 초대 주빈국인 중국관 내 전시장 모습  
② 개막식에서 귀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주빈국 개막식에서 장이권 주임은 “초대 주빈국으로 선택 돼 영광”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국과 한국 출판업이 공동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실 차관은 “이번 주빈국 초청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작가와 출판인을 직접 만날 수 있어 행운”이라며 “양국의 출판, 문화 교류 확대로 서로간의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후 장이권 주임이 성남기 한국국립중앙도서관 관장에게 중국 도서 300권을 기증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 부대전시 및 행사

Korean New Titles관, 외국어로 읽는 한국 아동 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원사 대표 도서전, 저작권센터가 운영되었으며 인도양홀에서는 구입한 도서 혹은 도



서전 옆서에 도서전 기념 스탬프를 찍어갈 수 있는 ‘도서전 기념 스탬프 찍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 Korean New Titles관

도서전을 찾는 해외 출판인에게 한국 신간과 우수 도서를 소개하여 도서전 현장에서 저작권 거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 하기위해 올해부터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자사 도서 중 해외 출판인에게 소개하여 저작권 거래를 원하는 출판사의 대표 도서 70여 종과 국내 도서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외국어 초록 사업>의 선정 도서 50여권이 전시되었다.

또한 도서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작권센터와 연계하여 공간을 구성했다.

#### 외국어로 읽는 한국 아동 도서

원작 도서 84종과 미국, 프랑스, 벨기에, 중국 등 10개국에서 번역 출판된 도서 90여종을 포함해 모두 174종 246권이 전시되었다.

저작권이 수출되어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한국 아동 도서를 전시함으로써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아동도서 경향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출판사에게는 경쟁력 있는 도서 기획에 대한 안목을 높여주고, 해외 출판사에게는 한국 아동도서에 대해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원사 대표 도서전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원사 중 개별 부스 참가를 하지 못한 출판사의 대표 도서를 전시함으로써 출품을 원하



1.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조성한 직지·금속활자 전시관 2. 아동·교육관인 인도양홀에 설치된 행복도서관 3. 중국 현대 중·단편 소설집 출간기념회에 츠츠런(왼쪽) 예신(가운데) 등 20여명의 중국작가들이 참여했다.

는 회원사의 도서를 전시해 회원사 전체의 도서전 참여도를 높이고 전시장을 찾은 독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도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95개사 150여권 전시)

### 직지체험관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남봉익)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찬란했던 고인쇄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 직지홍보관을 마련했다. 직지홍보관은 직지 영인본과 금속활자 주조과정을 설명하는 모형들을 전시했으며 금속활자관 인쇄를 시연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 저작권센터

저작권 담당자 및 전문 통역 요원이 상주하여 상담을 원하는 국내외 관계자들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계약과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했다.

### 이벤트 홀 행사

#### 이벤트홀1 - 포럼리브리

전시회 기간 내내 일반 단행본관인 태평양홀 내에 위치하여 성인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간발표회, 작가와의 만남, 저자와의 사진 한 장, 작가 사인회 및 강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17일까지 매일 2~3회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 이벤트홀2 - 책마당

아동·교육관인 인도양홀에 위치하여 어린이독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신간발표회, 작가와의 만남, 저자와의 사진 한 장, 작가 사인회 및 강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18일까지 매일 1~4회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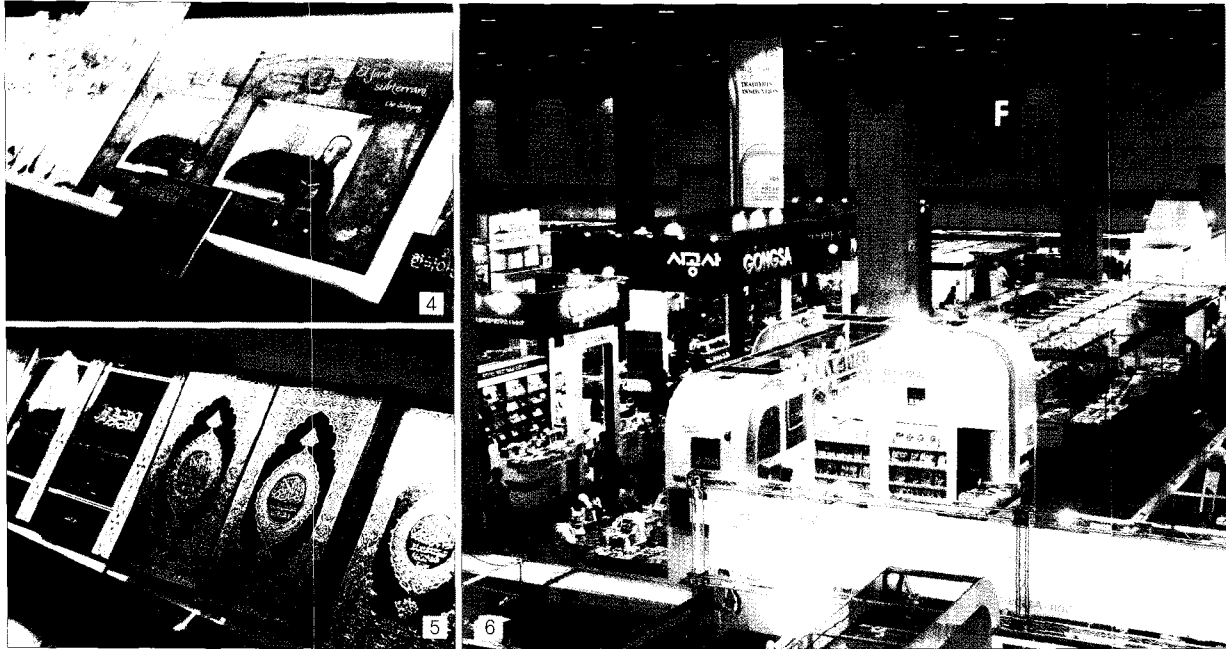
#### 세미나

최근 독서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독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활동 수준은 낮고,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독서문화 활성화로 국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를 통해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독서문화의 성숙에 기여하고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개막식날인 14일 COEX 컨퍼런스센터 311호에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인의 날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김재운 국회의원의 기초강연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각 분야별 패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패널로는 시민단체 :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



4. 외국어로 읽는 아동도서 5. 독특한 표지의 이슬람권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 6. 서울국제도서전 전경

동 사무처장), 지자체 : 엄연숙(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과장), 교육계 : 한원경(대구시교육청 장학사), 산업계 : 이현석(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도서관계 : 황금숙(한국도서관협회 독서문화위원장), 출판계 : 이석범(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정부 : 최장현(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16일에 열린 “프랑스 아동 문학 세미나”는 ‘프랑스 아동 문학 현황’이라는 주제로 COEX 4층 오펜룸에서 최윤정(바람의 아이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다니엘 포세트(작가), 로랑스 카리옹(편집자 - Seuil Jeunesse) 이경혜(작가), 문승연(편집자 - 천둥거인 Chondung Books 대표)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 세미나인 “2008 디지털시대의 도서관 세미나”는 사회적인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는 도서관의 방향 제시, 디지털 도서관의 사회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각 도서관 핵심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정보 및 정책 제공, 21C형 전자출판물인 오디오북 집중 탐구 등 4가지 주요주제로 COEX 컨퍼런스센터 304호에서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사업진흥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초대 주빈국, 중국 도서전시

2008 서울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초청된 중국은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중국의 모습, 유구한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도해내는 중국을 한국 출판인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Tradition and Innovation” (전통과 혁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 도서전시

중국 당대 경제, 문화, 인문 등 각 방면 우수 도서, 북경올림픽 자료 및 중국 문화, 예술, 여행 방면의 서적 및 화보, 중국 당대 문학, 당대 유명 작가의 베스트셀러 도서, 중국어 교재 및 사전, 중국 고전 문학, 한국에서 이미 번역 출판된 중국도서 또는 한국에서 번역 출판될 예정이거나 저작권 수출 예정인 기타 도서를 전시했다.

#### 중국서예회화작품전

태평양, 인도양을 연결통로에서는 중국 유명 회화작품과 서예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국 서예가 협회 이사 우춘허 선생의 서예 작품 일부와 홍콩의 저명한 화가 샤오후이룽 선생의 대표작 일부를 선보였다.

우춘허 선생은 현재 중국 및 해외에서 많은 전시회를 통해 널리 이름을 알린 중국의 대표적인 서예가이고, 샤오후이룽 선생은 전통 회화체를 바탕으로 개성 있는 스타일을 창조하여 현재 홍콩과 동남아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전시 작품들은 도서전 기간 마지막 2일 동안 전시장에서 판매되었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